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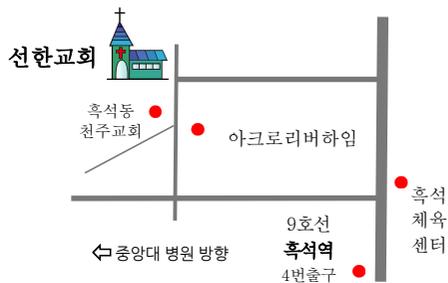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1부 주일 오전 9:30		유 아 부	오전 10:00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청 소 년 부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청 년 부	오후 1:00
(5째주 셀가족모임)		비 전 워 십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여 호 수 아 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요 셉 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바 울 회	오후 2: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루 디 아 회	오후 1:00
		마 리 아 회	오후 2:00
		드 보 라 회	오후 2:00
		에 스 더 회	오후 2:00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교 육 목 사	정 용 준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 육 전 도 사	윤 영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협 력 전 도 사	오 호 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해 외 협 력 선 교 사	이 금 춘, 조 나 단, 김 만 조	
	박 희 태, 유 신 웅			
	조 윤 익			
장 로	이 태 수 (집 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윤 호 중	500/5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편 도 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너희는 강하게 하라 (대하 15:7)		
실 천 사 항	믿음의 선포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
살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딤후 3:12)



창립
 43주년
 기념예배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 : 임춘배 목사

3부 오후 1시

인도 : 정용준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7장 (통일찬송가 27장)	
교 독 문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찬 양 과 경 배	341장 (통일찬송가 367장)	
기 도	조계승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씀 봉 독	디모데후서 3장 10~17절	요 2:13~21
설 교	말세 때의 참 교회의 모습 (임춘배 목사)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불타오르다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알토 파트	
케 익 절 단	담임목사 부부 및 집사장 부부	
근 속 자 정 선 물 증 정	40년, 30년, 20년 근속자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청년부 회장
파 송 의 노 래	하나님의 부르심	삶의 예배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일 오후

오후 3:30

사회 : 임춘배 목사

장로 은퇴 및 권사 취임 예배

수요 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시 40편 1~17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오늘 점심 봉사 부서는 여호수아회입니다.
 - 3) 교회현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주차권을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창 립 예 배 은 퇴 취 임 식**

오늘은 교회 43주년 창립기념주일예배, 오후 3시 장로 은퇴식 및 권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 * 은퇴 장로: 고상돈, 유신웅, 조운익 장로
 - * 취임 권사: 김은희, 김정원, 정영옥 권사
- 근 속 자 명 단**
 1. 40년 근속: 이수경 집사
 2. 30년 근속:
고상돈 장로, 류은영 집사, 박대수 집사, 윤국로 집사, 이성범 집사, 장혜선 권사, 정진숙 집사, 조선희 집사, 조은혜 집사, 최윤정 집사
 3. 20년 근속: 심지숙 집사
 - * 근속상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창 립 주 일 선 물**

창립기념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전 도**

매 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 * 담당 순서
 - 3월 25일(토): 흑석 1,2 / 서초
 - 4월 29일(토): 분당 / 안산
 - 5월 27일(토): 안양 / 과천 / 강북 / 관악 / 강서
- 교 회 대 청 소**

4월 1일(토)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말씀과 경건의 능력으로 말세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찬송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통 489)

본문 : 누가복음 17장 11~19절

말씀 :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신 분이시고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감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 이유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 윌리엄 아서 워드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사고 정성껏 포장했어도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를 느끼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열 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릴 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 17:1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질병에서 치유 받았을 뿐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로 믿었던 사람은 많았지만,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경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분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홉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의 병이 치유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병을 고치셔서 영혼의 병까지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홉 명은 육체의 병이 사라진 것에 만족했고 영원한 운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도 응답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와 경배를 드릴 때 생겨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 목

말세 때의 참 교회의 모습 (딤후 3:10~17)

서 론 선한교회가 창립된 지 43주년이 되었습니다.

1. 참 교회의 모습

- (1)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교회 (12절)
- (2)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보이는 교회 (10, 11절)
- (3)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교회 (14~17절)

본 론

2. 교훈

- (1) 말세 때에 교회와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은 무엇인가?
- (2) 경건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 (3)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보이고 있는가?

결 론

말세의 고통의 때 가운데서도 말씀과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조계승 장로	박영근 장로
2부 예배 헌금	심인섭 집사	방성자 집사
오후 예배 기도		장혜선 권사
주 방 봉사	여호수아회	드보라회

매일 Q.T.		온 가족을 살리는 지혜로운 대처	날짜 : 3월 20일
찬양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본문	사무엘상 25:14~22		
말씀요약	하인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사실을 전합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떡과 포도주와 고기 등 음식을 준비해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은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준 것이 허사라며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단언합니다.		
목상질문 1	사건을 보고받은 아비가일 25:14~17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다윗의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해 어떻게 보고했나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내게 담이 되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목상질문 2	다윗을 만나러 가는 아비가일 25:18~22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아비가일은 무엇을 준비했나요? 누군가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25장 21~22절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화날 때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윗은 600여명의 식구를 위해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하지만, 나발이 거절합니다. 이에 다윗은 약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사람들을 치기 위해 갑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모욕을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힘에 익숙해지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기가 아니라 은혜로 세워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영적 순발력을 간구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소서. 어리석은 자존심으로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고, 위태로울 때도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는 삶을 할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바른 분별, 믿음의 선택”	
찬양과 기도	여기에 모인 우리 (새 620, G)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것(No pain, No Gain)입니다. 아무리 효율을 추구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No pain, No Gain’이 세상의 진실을 담고 있다면, 이를 뒤집은 ‘No Gain, No Pain’ 역시 진실입니다. 얻는 것이 없다면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에는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만족이라는 기쁨이라도 얻고자 하는 대가가 있기에 어려움도 감내하는 것입니다.</p> <p>성도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얻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인의 삶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그(예수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기쁨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성도는 불편함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더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p> <p>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감당한 적이 있나요?</p>		
말씀 나누기	사무엘상 26:1~12		
목상포인트	다윗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오랜 시간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 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슬한 고난의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그릇으로 단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고난을 참아 내셨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히 12:2). 눈앞의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잠들어 있을 때, 아비새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사울을 죽이려 하자 다윗은 어떻게 말했나요?(7~9절)		
적용하기	상황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 잘못 결정한 일은 없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상황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게 하소서. 역울한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원수의 입술을 통한 미래 승리의 찬사	날짜 : 3월 24일
찬양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본문	사무엘상 26:13~25		
말씀요약	다윗이 건너편 산꼭대기에 서서 아브넬을 부르고,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긴 다윗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다시는 그를 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시길 바라고,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목상질문 1	사울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다윗 26:13~20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행동이 왜 죄가 된다고 했나요?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상질문 2	잘못을 인정하는 사울 26:21~25 다윗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선한 행동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 주시길 원했나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을 믿고 선을 따라야 할 일이 있나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26장 21절 참된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윗이 자신을 살려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향한 적대감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울 처럼 화려한 언변과 설득력 있는 호소에도 '속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바람에 영향을 받는 돛단배처럼, 감정과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의 연약함까지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 하소서. 지금 당하는 억울함이 장차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이면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함으로 타인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매일 Q.T.		복수심을 누그러뜨린 지혜로운 설득	날짜 : 3월 21일
찬양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본문	사무엘상 25:23~35		
말씀요약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 대신 용서를 구하며, 다윗이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같이 되기를 원한대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걸리는 일이 없으리라고 합니다. 다윗은 참사를 막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목상질문 1	다윗을 설득하는 아비가일 25:23~31 아비가일은 어떤 말로 다윗의 보복을 막았나요? 내가 누군가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온유와 지혜로 권할 말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아비가일을 칭찬하는 다윗 25:32~35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잘못을 지적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한절목상	사무엘상 25장 28~29절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중이며,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실 것'이라는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에 다윗은 살인할 뻔했던 마음을 돌이킵니다. 늘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실 때는 단호하게 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존중받아야 할 사람은 존중할 수 있는 겸손을 구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제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충고를 경청함으로 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게 하소서.		

매일 Q.T.		불의를 보복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날짜 : 3월 22일
찬양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본문	사무엘상 25:36~44		
말씀요약	나발은 큰 잔치를 배설해 취해 있습니다. 다음 날 술이 깬 후, 아비가일이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하자 나발이 낙담합니다. 열흘 수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욕을 갚아 주시고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습니다.		
목상질문 1	나발의 죽음 25:36~38 하나님이 나발을 죽음으로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발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가 버릴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다윗 25:39~44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나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친히 풀어 주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25장 37~38절 성도의 마음은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왔었다는 말을 들은 나발은 낙담해 열흘 후에 죽습니다. '낙담했다'는 것은 '마음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낙심하고, 화내고, 염려하는 죽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나발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오늘 흥청망청한 어리석은 부자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마음이 살아 있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욕망과 탐욕을 제거해 주셔서 은혜로 받은 부함을 선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비전해 보이는 자를 무시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해결되는 날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하소서.		

매일 Q.T.		원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날짜 : 3월 23일
찬양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본문	사무엘상 26:1~12		
말씀요약	사울이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찾으러 십 광야로 내려가 진을 칩니다. 다윗은 밤중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이릅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가운데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고 하며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목상질문 1	십 광야로 온 사울 26:1~7 다시 시작된 사울의 추적에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내가 담대히 믿음으로 직면해 해결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사울을 살려 준 다윗 26:8~12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 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수에게 복수하고 싶을 때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사무엘상 26장 9~10절 자신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두 번째 기회를 포기합니다. 심지어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에게 손대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은 데서 다윗의 일관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의 다른 모습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자기 잘못을 인정했던 원수가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공격해 올 때, 인간에 대한 실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게 하소서. 반복되는 공격에 감정이 상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